

1970년대 타자의 윤리학과 ‘공감’의 서사*

박숙자**

1. 타자와 공감할 수 있는가
2. 국가주의의 멘탈리티와 혐오스러움
3. 타자성에 조응하는 공감
4. ‘찻찻함’의 윤리

국문요약

이 글은 윤홍길의 『아홉켤레 구두로 남은 사내』를 대상으로 1970년대 국가주의적 개발독재 시기에 타자의 고통에 공감한다는 것의 의미를 탐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970년대 국가주의의 재개발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공공성/생존권 논의가 첨예하게 대립한다. 그 대표적 사건이 1970년대 발생한 ‘광주대단지’ 사건이다. 거주권에 대한 주장이 국가주의적 공공성 논리에 밀리는 과정에서 거주권을 주장하는 개인들이 어떻게 혐오스러운 비시민으로 형상화되는지, 또 이 혐오의 감정이 어떻게 국가주의의 논리와 연결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고에서는 이 과정에 주목하며 인간의 분원적 감정에 개입하는 국가주의의 문화정치적 논리와 이에 저항하는 공감의 가능성을 분석해 보았다.

『아홉켤레 구두로 남은 사내』는 1970년대 일어난 광주대단지 사건을 작품의 소재로 끌어오면서 당시 ‘난동자’로 분류된 철거민, 세입자의 고백과 경험을 그대로 전제한다. 그간 문학사에서는 이러한 서사적 재현에 대한 평가보다 의식의 성장이 드러나는 연작 전체를 통해 이 소설을 평가해왔다. 이 작품의 경우 주인공 권씨가 도피하는 것으로 끝나는 반면, 다른 연작에서는 노동자의식을 갖게 되면서 민중연대의 가능성을 열어놓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권씨가 의식있는 노동자로 변해가는 다른 연작의 결말이전에 이미 이 작품 안에 또다른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전제하면서 인물들 간의 관계성의 변화를 통해 국가주의적 가치가 다르게 전유되는 양상을 살펴보았다. 이 과정에서 인물이 느끼는 공포·혐오의 감정이 공감으로 바뀌게 되는

* 이 논문은 2010년 정부(교육인적자원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0-32A-A00153)

** 인하대 대우계약제강사

과정을 의미있게 살펴보고, ‘공감’의 결과로 남게 된 타자성의 혼적인 ‘찝찝함’이 인물의 윤리적 행동을 촉발해내는 기제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였다. ‘공감’이 인물들 간의 일치와 동일시의 감정이입이 아니라 실은 타자성의 발견이라는 것, 그러므로 ‘공감’이후 인물들간의 관계를 재구성하는 윤리적 결단으로 나타나는 사실에 주목해보았다. 이를 통해 1970년대 국가주의적 시대 속에서 공감이 어떻게 타자의 윤리학이 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았다. (주제어: 공감, 공감의 상상력, 타자성, 윤리학, 감응, 철거민, 소시민, 광주대단지, 공공성, 생존권, 주권, 혐오, 공포, 연민, 시민의식)

1. 타자와 공감할 수 있는가

‘공감’의 통상적 의미는 ‘남의 감정, 의견, 주장 따위에 대하여 자기도 그렇다고 느끼는 감정’이다. 근대 역사에서 ‘공감’은 개별성을 통합해내는 공통감각의 기반이자 타자들과 공존하는 사회적 연대의 형식인 동시에 사회적 상상력의 매개로 언급되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수잔손택은 ‘공감’이 진정으로 타인의 고통을 위무하는 공통감각이자 사회적 형식일 수 있는지 묻는다.¹⁾ 혹여 공감이 주체를 타자의 고통으로부터 분리시키며 안도감을 얻는 허위적인 감정은 아닌지 하는 물음이 그것이다.

그러나 『타인의 고통』의 문면을 따라가다 보면, 손택은 ‘공감’ 그 자체를 문제삼는다고 보다 ‘타인의 고통’을 스펙터클화된 이미지로 치환시켜버리는 근대의 표상체계를 비판하는 듯 보인다. 타인의 재난을 시각적 이미지로 지각하는 순간, ‘고통’이 ‘타인의 것’으로 한정되면서 주체와 무관한 것으로 오인·왜곡된다는 것, 이렇게 야기된 ‘공감’은 근원에서부터 배제와 소외를 낳으며 주체의 자기 보존을 위한 논리로 활용된다는 것이 그것이다. 이와같은 ‘공감의 불완전성’은 ‘공감’을 ‘도덕감정’으로 입론화하고 있는 애덤스미스의 논의에서도 징후적으로 포착된다.²⁾ 그는 『국부론』과 『도덕감정론』를 기술하며 사회시스템과 여기에 적합한 인간 본성을 논의하는데³⁾ 이 과정에

1) 수잔손택, 이재원 역, 『타인의 고통』, 이후, 2004.

2) 아담 스미스, 박세일·민경국 공역, 『도덕감정론』, 비봉출판사, 2009.

3) 김근배, 『How to read classic - 아담 스미스의 <<도덕감정론>>』, 『송대시보』,

서 ‘공감’을 타인들의 처지와 상황에 관심을 두는 상상력인 동시에 이기적인 개인들을 규율하는 내면 도덕으로 논의한다.

스미스의 『도덕감정론』은 개인들이 어떻게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이야기했지만 신민들을 규제하는 법률처럼 개인의 내면을 적절하게 규율해야 하는 것으로 보았다는 점에서 주체중심의 공감 공감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도덕감정론』의 이러한 성격과 관련, 스미스의 공감이 근대세계의 표상 형식으로 개발된 근대적 감성으로 때려야 뗄 수 없다는 주장 또한 제기되고 있다. 이 주장에 따르면 ‘공감한다’는 반응 속에는 스펙터클화된 세계를 관조하는 관망자(spectator)와 이로부터 야기되는 적절함의 윤리가 내포되어 있다고 이야기된다.⁴⁾ 즉 공감이 근대적 감성의 형식으로 계몽이성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이렇게 규율화된 ‘공감’이 결국 또다른 ‘감시사회’와 불가피하게 연동할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우리의 경우에도 근대 초기에 이와 유사한 논의가 제출된 바 있다.⁵⁾ 춘원이 1910년대 ‘공감’을 ‘적절한 감정’으로 논의하며 ‘조선’을 가능케하는 동일성의 감수성으로 ‘동정’을 주장한 것이 그것이다. ‘동포’의 공동체를 구성하기 위해 ‘동정’해야 된다는 명제는 이런 맥락에서 제시되었다. 이렇게 ‘공감’이 근대인간이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적절함의 윤리로 제기되면서 한 개인이 공감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그가 바로 근대인인지 아닌지 가늠할 수 있을 정도로 근대인의 아비투스처럼 논의되기도 했다. 한국문학에서 이

2010.3.

- 4) 민은경은 수잔손택과 비슷한 관점에서 ‘공감’을 전유한다. 그는 공감을 근대 시민사회의 역사화된 개념으로 전제하면서 공감이 결국 “나를 버리지는 못하며 타인의 관망자에”에 머물게 하는 감정이라고 말한다. 즉 타인의 고통을 바라보는 개인들은 그 고통을 두렵게 느끼기 때문에 거리를 두게 되는데, 이런 이유로 스스로의 감정을 자제하고 규율할 수 있는 인간들이 시민사회에 적합한 인간상으로 평가된다. 스미스의 적합한 인간상에 대한 개념은 감시사회를 논했던 벤딕이나 생체권력을 논했던 푸코와 유사하다고 지적한다.(민은경, 『타인의 고통과 공감의 원리』, 『철학사상』27집, 서울대 철학사상연구소, 2008. 67-90쪽)
- 5) 이런 맥락에서 ‘공감’을 ‘감정’이 아니라 ‘작동원리’나 ‘힘(power)’으로 봐야 한다고 말하기도 한다.(김용환, 『공감과 연민의 감정의 도덕적 함의』, 『철학』76집, 한국철학회, 2003.8. 155~180쪽)

러한 ‘공감’은 『무정』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무정』의 주인공 형식은 이십을 갓넘긴 유치한 감정과 연애감정의 소유자였음에도 근대세계의 주인공으로 대중들의 환호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다른 인간을 연민과 동정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태도를 가졌기 때문이다. ‘선형’이라는 자명한 근대가 바로 목전에 있었음에도, 영채의 마음을 미루어 짐작하기도 하고 늙은 노파의 신세에 대해 동정하기도 하며 그가 나아간 길은 ‘동포’라는 상상의 동일성이었다.⁶⁾ 그에게 공감의 대상은 선형적으로 주어진 보편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낯설디 낯선 삼랑진 수해의 주민들을 ‘타인’이 아니라 ‘동포’로 상상하는 것, 즉 타자성이 제거된 대상을 공감의 상상력으로 매개한 작품이 『무정』이다.

지금까지 ‘공감’이 ‘동일시’의 감수성으로 담론화되었다면, 이제부터의 공감 논의는 타자의 타자성에 공감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로 조정되어야 한다. 근대사회에서 공감이 국가주의적 기제 안에서 원인과 연민의 수동적 감정과 함께 동일성의 정치를 야기했다면⁷⁾, 즉 관망(spectator)하는 주체의 지위를 그대로 계승한 채 감시의 시선과 ‘상상력’을 결합시켜 근대사회의 교환형식에 부응하는 감정형식으로 장려해 왔다면⁸⁾, 이제는 국가주의적 기제 안에 포섭되지 않는 타자성에 조응하는 ‘공감’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⁹⁾ 이것은 선형적인 형식으로 상상하기 어려운 ‘미지의 것’, ‘낯선 것’

6) 이와 관련, 이광수의 근대적 기획을 ‘동정의 원리’에서 찾으며 동정(sympathy)이 ‘새로운 감정규범’이었다고 주장하는 필자로 손유경, 김성연, 김현주를 들 수 있다. (김성연, 『우리의 동정을 시험하라』, 『문학과 사회』, 2003. 여름, 970-984쪽; 김현주, 『이광수특집-공감적 국민=민족만들기』, 『작가세계』 57호, 2003.5. 65-79쪽) 특히 손유경은 지식인 동정 담론에 대한 문화적 대응양상을 통시적으로 규명하면서, 동정이 계몽주의적 동정에서 출발해서 연대와 통합의 이데올로기로 전환되었다고 지적한다. (손유경, 『한국 근대소설에 나타난 '동정'의 윤리와 미학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2006.)

7) 심광현, 『감정의 사회학』, 『문화과학』, 2009.

8) 가라타니 고진도 ‘공감’을 사회적 상상력으로 언급한다. 그는 ‘공감’이 자본주의적 무한 경쟁과 양립하는 감정으로 현실자본주의 경제가 초래한 격차, 혹은 감성과 오성 사이의 괴리를 공감이 매꿔주는 상상력으로 언급하며 프랑스로의 ‘우애’도 유사한 개념이라고 설명한다. (가라타니 고진, 『세계공화국』, 조영일 역, 도서출판 b, 2007. 167-178쪽)

9) 랑시에르는 근대미학을 통해 감수성의 변화와 개혁을 주장하는데, 이 과정에서

에 대한 ‘충격’이 포함된 타자성에 대한 발견이어야 하며, 의식적인 상상이나 이데올로기로 포착되지 않는, 이미 있었던 기호일 수도 있으나 적어도 주체성을 동일하게 반복하는 것으로 작용하지 않는 감정이어야 한다.¹⁰⁾ 다시말해, 공감은 주체성의 ‘매개’로서가 아니라 타자와 공존하는 만남이어야 하며, 이런 맥락에서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나와 타인이 놓인 관계의 변화를 내포하는 것이어야 한다.¹¹⁾ 이것은 공감의 본원적 의미에 다가서는 기획이기도 하고 상호성의 원리에 기반한 타자성에 조응하는 공감에 대한 재구성이기도 하다.

본고에서는 이같은 ‘공감’의 가능성을 1970년대 맥락 속에서 살펴보려고 한다. 공감의 새로운 가능성을 1970년대 맥락에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1970년대 한국사회가 국가주의에 기반한 감수성의 문화정치가 주체구성의 원리로 작동한 시기라는 점, 즉 바람직한 감정이 국가주의와 결합해서 개인의 내면을 규율했던 시기이기 때문이다. 강고한 국가주의적 가치가 개인의 감성에까지 파고들어 개인의 도덕의식을 규정했지만, 이와 동시에 개인성에 기초한 개인들 간의 공감의 가능성이 맹아적이지만 그 가능성을 드러냈

‘감성의 분할’을 주장한다. 감성의 분할이란 기존의 권력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잠재되어 있던 정치적 감성들을 새롭게 가시화시키는 정치이다. 랑시에르의 논의가 감성의 재구성을 통해 미학과 정치의 관계를 설명한다는 점에서 본고의 논의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랑시에르, 『미학과 정치』, 오윤성 역, 도서출판 b, 2008.)

- 10) 들뢰즈는 감성을 ‘상처(punctum)’를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의 능력으로 언급한다. 이때 상처란 주체에게 가해지는 외부의 강제(폭력)로 자아와 자기성의 근본구조를 해체한다. 때문에 ‘감성’은 하찮은 것, 육체화된 것으로 총칭되는 ‘감정(sensible)’과는 구분해서 ‘감응(affect)’으로 개념화되기도 한다. 또한 공감이 가진 주체의 상상력과 관망자의 시선을 대신해서 ‘공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서로 이웃하는 항들간의 울림과 조화를 강조하기도한다.(서동욱, 『공명효과-들뢰즈의 문화론』, 『철학사상』27집, 서울대 철학사상연구소, 2008. 123-140쪽; 서동욱, 『들뢰즈와 레비나스에서 감성의 중요성』, 『철학과 현상학 연구』, 한국현상학회 20집, 2003.5. 172-189쪽)
- 11) 김홍중은 이런 맥락에서 ‘상상력’이라는 용어대신 ‘파상력’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상상력이 주체의 능력을 통해 부재하는 대상을 현존시키는 것이라면 ‘파상력’은 현존하는 대상의 비실체성을 강조하는 용어로서 차용된다.(『발터벤야민의 파상력 연구』, 『경제와 사회』, 2007.)

던 시기이기도 한 것이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공감이 새로운 관계를 구성해 내며 차이의 감수성으로 등장하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 이를 통해 상호성의 원리에 기반한 공감이 어떻게 타자의 윤리학으로 전환되는지 생각해 보려고 한다.

2. 국가주의의 멘탈리티와 혐오스러움

1977년 『창작과 비평』에 발표된 윤홍길의 『아홉 켄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¹²⁾는 1970년대 ‘광주대단지’ 사건을 배경으로 집주인과 세입자(철거민)가 겪는 복합적 감정을 세밀하게 포착하고 있는 소설이다.¹³⁾ 그간 기존

12) 이 작품에서 대상텍스트로 삼고 있는 『아홉 켄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는 1977년 6월호 『창작과비평』에 실렸다. (이하 『구두』로 표기한다.)

13) 이 작품의 배경이 되고 있는 광주대단지는 현재의 행정구역상 성남 분당시를 가리키는데, 이곳은 1960년대말 서울의 판자촌 빈민들의 격리 이주 지역으로 조성된 임시 주거지였다. 당시 서울시는 서울 안에 거주하고 있는 빈민들을 거주환경 개선의 명목으로 이주시키면서 그 댓가로 거주권을 약속하는데, 이렇게 강제적으로 철거된 빈민들은 생활난과 주거권의 문제를 제기하며 최초의 도시 빈민투쟁을 일으키게 된다. 1971년 8월 10일 경기도 광주군에서는 수 만명의 주민들이 거주권과 생존권을 보장하라며 시위를 벌인다. 1960-70년대 시외곽에 건설된 광주대단지에서 일어난 이 사건은 국가가 약속한 주거권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공권력에 대항하는 형태로 발생한 것으로, 주거권과 공권력의 정당성에 대한 물음을 법적 판단에 맡긴 물은 역사적인 사건이다. 이 사건의 결과는 이미 알려진 것처럼, 시위에 참가한 주민들을 ‘무법자’와 ‘범법자’로 규정함으로써 헌법에 기초한 개인의 기본적인 권리조차 국가의 권위 안에서 논의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또한 ‘공공성’을 국가주의적 질서로 해석함으로써 개인의 권리에 대한 주장이 공공성과 직접 대치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 이 사건은 1970년대 국가주의적 근대화 계획 안에서 어떻게 개인의 생존권이 배제되는지, 그리고 ‘거주권’을 매개로 개인이 어떻게 ‘벌거벗은 삶’으로 내몰리는지, 그리고 법적 판단이 어떻게 개인의 진실을 대체하는지 하는 문제를 집약적으로 보여준다. 또한 ‘공공성’ 담론이 국가주의적 이데올로기와 결합해서 개인을 법적 주체로 호명하며 시민/비시민을 양산한다는 점에서, 또한 이것이 결국 법과 삶의 관계를 성찰하게 하며 국가주의적 ‘법’의 합리성을 물은 사건이다(『광주단지주민들의 가난한 나날, 무법 부른 불모의 황야』, 『동아일보』, 1971.8.11; 『겉치레 대책에 불안한 이주민 겨우살이(상) 광주대단지』, 『경향신문』, 1970.9.23)

논의에서는 “연약한 소시민으로부터 적극적인 인간상으로의 변모가 잘 나타난 소설”이자 “소시민이 현실의 엄청난 무게와 싸우는 적극적인 인간상으로 변모”해가는 작품으로 논의하면서 세입자 권씨가 ‘연작’ 형태 안에서 변화되는 과정을 중점적으로 고평해왔다.¹⁴⁾ 즉, 이 소설의 주인공인 권씨가 ‘삶의 문제’와 ‘현실의 엄청난 무게’ 속에서 노동자로 성장해 가는 과정을 의미있게 평가하며 1970년대 리얼리즘 서사의 가능성을 확인해왔다.¹⁵⁾ 1970년대 국가주의적 산업화의 속에서 ‘소시민’이 처한 갈등과 딜레마를 추적하는 일이 쉽지 않았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의식있는 노동자로 성장해가는 변화는 더욱 이채를 띠는 일이었기에 이러한 평가가 쉽게 수용되었다.

그러나, 한 인물이 노동자로 변해가는 모습을 통해 리얼리즘 서사의 가능성을 점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될 경우 이 작품에 드러나 있는 인물 간의 미묘한 감정적 연루와 동요의 과정을 놓치게 되면서 리얼리즘의 서사를 ‘개인’의 문제로만 한정시키는 우를 범하게 된다. 실제로 이 소설은 권씨와 오선생이 세입자와 집주인으로 처지가 다르게 등장하지만, 두 인물 모두 집을 매개로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시대의 경험 속에서 이 둘의

14) 이 소설은 당대에 1970년대를 대표하는 문제작으로 꼽히나, 리얼리즘 서사로서의 가능성은 1980년대 후반에 와서 본격화된다고 볼 수 있다. 1993년에 출간된 『한국소설사』(김윤식, 정호웅, 예하, 1993)에서도 윤희길을 작품경향을 평가하며 ‘노동현실의 소설화’라고 할 정도로 노동자의 계급의식을 서사의 중요 지표로 삼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아홉 켈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가 실린 단행본의 개정판에서 더 두드러지는데 성민엽의 경우 1996년 단행본 해설에서 ‘연작의 의미’를 통해 이 작품의 의미를 해부하고 있으며 1970년대 문학을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연구서에서도 조세희와 함께 ‘노동자의식’을 작품의 주요한 지표로 삼고 있다. (오성근, 「개인과 사회의 역학」, 『아홉켈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 윤희길, 1996. 300쪽; 성민엽, 「아홉켈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 연작의 현재적 의미」, 『아홉켈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 윤희길, 1996. 316쪽; 김복순, 「노동자의식의 낭만성과 비장미의 ‘저항의 시학」, 『1970년대 문학연구』, 소명출판, 2000.117-150쪽.

15) 이평전과 송은영은 1970년대 도시산업화를 주요 의미지표로 삼아 소시민들의 소외와 병리성에 주목한다. 이는 리얼리즘 서사의 또다른 가능성을 탐구하는 연구라고 할 만하다.(이평전, 『윤희길 소설에 나타난 자본주의 공간의 병리성 연구』, 『인문학연구』, 충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0; 송은영, 『현대도시 서울의 형성과 1960-70년대 소설의 문화지리학』, 연세대 박사논문, 2008. 145쪽)

차이와 공통분모를 살펴보아야 한다. 즉 이 두 인물의 ‘차이’가 국가주의적 공간편제와 주거권을 통한 시민화 과정 속에서 이루어진 ‘차별화’ 과정과 연결되기 때문에 오선생과 권씨를 동시에 봐야지만 당대의 역사성 속에서 인물의 변화를 드러낼 수 있게 된다. 또한 철거민이자 세입자로 등장하는 ‘권씨’의 변화만을 의미있게 다루게 되면 국가주의에 대한 인물의 미묘한 감정 변화와 이로부터 배태되는 국가주의의 균열을 ‘저항’으로만 한정짓게 된다. 소설의 윤리성을 인물차원의 ‘저항’으로 논의하기 이전에 ‘저항’을 추동시켜내는, 억압된 동시에 해방적인 감성이 어떻게 ‘저항’이라는 행동으로 외화되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 이 작품의 서두는 주목할 만하다. 오선생과 권씨가 집주인과 세입자로 만나기 직전 순경이 나타나 이들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인데, 이를 통해 두 인물의 관계성이 드러나는 것 뿐만 아니라 관계를 조정하는 매개를 가시화시키게 된다. 이렇게 권씨가 등장하기도 전에 국가주의적 가치를 직접적으로 지시하는 순경이 나타나 권씨를 중개하게 되면서 권씨가 가진 여러 자질들을 왜곡되고 폄하된다. 또한 집주인 오선생은 순경을 대신해서 세입자 권씨를 ‘감시’하는 역할까지 부여받게 된다.

문간방 사람들도 최소한 우리 만큼은 질이 좋기를 당연히 요구했던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기대는 어쩐지 처음부터 자꾸만 빛나는 느낌이었다. 특히 사복 차림으로 학교까지 찾아온 이순경이 주민등록부에 우리의 동거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안동 권씨에 관해 얘길 꺼냈을 때 느낀 배반감은 절정에 달했다. “조금도 부담감 같은 걸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매일매일 무슨 보고 형식을 취할 것을 의무적으로 요구하는 건 아니니까요 약간 특별한 동태가 보일 때 가령 멀리 여행을 떠나게 되었다든가 좀 이상한 손님이 찾아왔다든가 쌀이나 연탄이 떨어져서 굶는다든가 갑자기 많은 돈이 생겨서...” 부담감이라는 것에 대해 이순경은 매우 그릇된 견해를 가지고 있음이 분명했다. 적어도 내가 알기로 그것은 갖고 싶다고 가져지고 갖고 싶다고 안가져지는 그런 임의의 선택물이 아니었다. 더구나 그것은 스스로 원해서 어떻게든 가져보려고 안달할 정도의 그런 기호물은 절대 아니었다.

“나더러 이제부터 당신 밀대 노릇을 하라는 얘깁니까?” “무슨 그런 거북한 말 씀을!” 우리 학교 담당인 학사 출신의 이순경은 한바탕 너털웃음을 한 다음 곧장 진지한 표정이 되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오선생님 앞에서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강조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친절한 이웃이 돼주십시오 부탁드리는 겁니다”

“권씨의 동태를 일일이 사직 당국에 고자질해야만 권씨의 친절한 이웃이 되는 균요” “그렇다마다요” (146-147쪽, 강조 인용자)

이 작품에 집주인으로 나오는 ‘오선생’은 “많이 무리를 해서 성남에다 집채를 장만”했기 때문에 “그 무리를 봉창해 볼 작정으로 셋방”을 내놓기로 결정하며 권씨를 세입자로 들이게 된다. 자신도 이 집을 구하기 전까지 세입자로 전전하다가 어렵게 집을 구입했기 때문에 “질이 좋은” 집주인이 될 것을 자임하며 선량한 세입자를 기다린다. 그러나 이런 다짐도 잠시 세입자와 계약한 직후 ‘순경’이 찾아와 집주인으로서 준수해야 할 ‘의무’를 명령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 이순경이 오선생 집에 찾아와 세입자 권씨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설명하며 “친절한 이웃”으로서 그를 감시하라고 명령하는 것이다. 오선생은 자신의 상상이나 다짐과 달리 ‘세입자’를 들이게 되는 일이 국가의 법적 계약 안에 놓이게 되는 일인 동시에 시민의 의무가 발생하는 일로서 “사직당국에 고자질”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이렇게 해서 오선생은 집을 계약하는 순간 ‘시민’으로 호명되는 것과 동시에 ‘감시’의 의무를 받게 된다.

자신이 법에 따라서 내사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른 누구보다도 유별나게 못 견디는 체질입니다. 내 전임 담당자 때는 여러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내사당하고 있다는 걸 일단 눈치만 채고 나면 직장도 생활도 심지어는 처자식까지도 다 포기 해버리는 성미죠. 숫제 드러누워서 며칠씩이고 굶고, 밥대신 허구한 날 강술만 들이권다거나 짐승처럼 난폭해져가지고 발광 그 직전까지 갑니다. 그렇게 착하고 양순한 사람이 말입니다. 이제 제 말씀을 이해하셨을 줄 믿습니다. 제 임무를 감쪽같이 수행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만 주신다면 오선생님은 어김없는 친절한 이웃이 될 수 있습니다.(148쪽)

또한 이순경은 권씨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증개한다. 이순경의 설명에 따르면 권씨는 법을 위반한 범법자일 뿐만 아니라 ‘내사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짐승처럼 난폭해져가지고 발광”하는 인물로 국가의 시민이 되기에 그 자질이 미흡한 인물이다. 권씨가 “처자식까지 다 포기하며” “짐승처럼 난폭해지는” 발광 직전까지 가는 이유가 국가의 ‘내사’와 관련이 있

음에도 그 이유에 대해서는 침묵한 채 단지 권씨의 자질만을 부각한다. 이를 통해 권씨는 ‘내사’와 ‘감시’가 필요한 ‘발광’ 하는 ‘짐승’로 폄하되며, ‘국가주의적 감시’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감시대상으로 묘사된다. 뿐만 아니라 시민/비시민의 자질을 간접적으로 제시하면서 비시민에대한 감시와 관리를 ‘친절한 이웃’의 의무로 정당화한다.

사정이 이러하기에 오선생은 권씨를 세입자로 맞이하면서 무척 거북해한다. 자신의 집에 세들어사는 세입자가 범법자라는 사실만으로도 부담스러운데 이 세입자를 감시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느끼면서 더욱 마뜩잖아 한다. 오선생의 이러한 심리적 부담감은 권씨가 이사온 첫날부터 극명하게 드러난다. 그는 권씨가 이삿짐을 들이는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며 희화화의 방식으로 심리적 거리를 유지한다. 그래서 “가관이야 못해 장관이었다”라고 말하며 권씨를 냉소적으로 폄하한다. 이러한 반응은 작품 초반에 제시된 이순경의 설명이 아니었다면 쉽게 이해되지 않았지만, 이미 권씨에 대한 정보가 부정적으로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오선생의 이런 감정적 반응이 사실적으로 느껴지기도 한다. 그런데 권씨에 대한 오선생의 심리적 부담감은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권씨를 혐오스럽게 재현하는 데까지 나아간다. 또한 그는 권씨를 ‘짐승’으로 재현하는 과정에서 자신과 비교해가며 심리적 안정감과 우월감을 드러내기도 한다. 오선생은 ‘보통키 정도밖에 안되는 나지만 그래도 권씨에 비기면 거인이나 다름없었다’라며 자신의 ‘정도’와 ‘수준’과 가늠하면서 우월감을 느낀다. 오선생이 권씨를 혐오스러워하는 동시에 안도해하는 이러한 태도에는 이순경의 배제의 논리에 대한 오선생의 양가적 반응이 담겨있다. 즉 이순경의 강력한 배제를 통해 안도하는 게 아니라 실은 자신도 그러한 배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을 감지하고 있기 때문에 더 혐오스럽게 재현하며 안심하는 것이다.

오선생의 이런 감정적 반응은 그또한 권씨와 다를 바 없이 광주군의 세입자로 살았던 그의 과거사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이 회상을 통해 재현된다. 오선생은 도시 철거빈민들의 거주지였던 광주군 단대리로 이사가자마자 “몇 안되는 선생”으로 별종인간 취급받을 만큼 그 동네가 하층계급들이 모여산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단대리에서 벗어나기 위해 아득바득 노력한다.

그의 기억에 따르면 단대리는 “숨통을 죄듯이 다다다닥 엉겨붙은 20평 균일의 천변부락”인 동시에 ‘날림중의 날림집’이 있는 동네다. 그래서 당시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니지만 어쩐지 이 바다사람들이 무서워요”라고 말하며 단대리 주민들을 거리화한다.¹⁶⁾

그의 이러한 감정은 ‘고물장수 여편네’로 부르는 이웃주민에게서 배가된다. 오선생부부가 보기에 ‘고물장수 여편네’는 동네에서 매일 싸움을 벌이는 천박한 인물로 “어느 경우를 막론하고” “인체의 어느 특정부위를 싹둑 잘라버리겠다고 말끝마다 씹어뵈곤”하는 인물이다. 그런데 이 ‘고물장수여편네’가 지속적으로 오선생부처를 “우묵한” 시선으로 “집어삼킬 것 같이 노려보는 시선”으로 지켜보자 이들의 두려움은 점점더 심해진다. 오선생부처가 보기에 ‘고물장수여편네’는 “웬만한 작두 푼수는 되는 어마어마한 고물장수 가위”를 가지고 다니며 “이빨과 손톱을 동시에 사용”하면서 “싹둑 잘라버리겠다”고 말하는 인물이다. 즉 고물장수여편네는 ‘싹둑 잘라버릴 수’ 있는 거세킴플렉스를 자극하는 대표적인 인물로서 이들의 오래된 ‘불운’ 콤플렉스를 매개하는 인물이다. 이를 통해 오선생의 두려움이 단지 가난 때문이 아니라 가난으로 상징되는 배제된 삶, 혹은 비시민의 삶 때문이라는 사실이 드러난다. 그래서 오선생은 ‘거세하는 자’의 형상으로 제시된 ‘고물장수여편네’의 응시를 통해 자기의 불운이 반복될지도 모른다는 느낌 때문에 괴로워한다. 이러한 사정은 오선생 부인도 다르지 않다. 자신보다 성적이나 얼굴이 훨씬 처지던 애들이 집안 좋고 학벌 좋은 사람들과 결혼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고 용서할 수도 없었다”고 말할 정도로 여전히 사회적으로 뒤처져있다는 콤플렉스가 강하다. 그런데 단대리에 들어와 살면서 이 불운킴플렉스가 더 자극된 것이다. 때문에 오선생부부가 그녀를 그렇게 무서워하고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단 한번도 그녀에게 말걸지 않는다. 말하지 않을

16) 1970년대 광주대단지가 주변부화되면서 이 공간에 사는 사람들이 ‘혐오’와 ‘배제’의 대상이 되었으며 이러한 심리적 열등감이 광주대단지 안에서도 증폭, 심화되었다고 한다. “성남의 안과밖, 양 방향에서 성남시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철거주민들은 경계와 멸시의 대상이 되는데 이는 결국 서울 시민들과 성남토박이들의 상대적 우월감과 열등감이 철거민들과 자신들을 심리적 계급적으로 분리하고자 하는 태도에서 비롯되었음을 알려준다.”(송은영, 앞의글, 145쪽)

뿐만 아니라 가까이하지도 않는다. 이는 그들과 근사(近似)한 거리에 놓이게 되는 이 거리감각의 실종 그 자체를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거세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동시에 비시민으로 동일시될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공포스러워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오선생부처가 경제적 여건이 여의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단대리를 떠나 100평짜리 반듯한 은행나무집을 소유하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그가 피하고 하는 것은 가난 그 자체가 아니라 배제된 자로서의 징표이며, 그가 누리하고자 하는 것은 시민으로서의 권리이기 때문이다. 즉 단대리라는 격리된 주거지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것은 ‘가난’이 아니라 사회로부터 ‘격리’될 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가깝다. 오선생이 ‘집’을 통해 얻고자 했던 것은 ‘국가’의 권리와 의무를 행할 수 있는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인 것이다. 오선생은 집주인이 됨과 동시에 ‘비시민’의 가능성을 차단해 버린다. 즉 시민/비시민의 경계가 국가주의적 공간 편제 속에서 폭력적으로 가치화된다는 것을 감지하며 집을 소유하게 된다.

이처럼 오선생이 권씨를 두려워하는 것과 달리 ‘혐오’스럽게 느끼는 것은 자신의 경계(자신의 주체성)가 침범될 수도 있다는 위협감에서 비롯되는 것이다.¹⁷⁾ 즉 오선생이 권씨를 ‘혐오’스럽게 바라보는 것은 권씨의 이력이나 내적자질에서 비롯되는 문제가 아니라 오선생이 가지고 있는 ‘불운컴플렉스’와 연동된 비시민으로서의 가능성 때문이다. 권씨가 놓인 바로 그 자리, 다시말해 세입자일 뿐만 아니라 국가가 관리하고 배제하는 소외된 그 자리를 자신이 다시 되밟을지도 모른다는 위협감 때문에 그 또한 자신과 다를 바 없는 권씨를 자신과 구별하고자 하는 것이다. 혐오스러움이 권씨나 오선생이 가진 경제적 가치나 도덕성 때문이 아니라 이를 시민/비시민으로 가치화하는 국가주의적 잣대의 개입 때문인 것이다. 사정이 이러하기에, 오선생은 권씨를 혐오스럽게 쳐다보며 이를 통해 안도감을 느끼기도 하고 또 이순경이 부여해준 ‘감시’의 시선을 의무라고 말하며 귀찮아하지만 이 시선을 통

17) ‘혐오감’에 대해 이명호는 ‘대상이 주체의 경계를 침범할 때’ 발생하는 감정으로 언급한다. (이명호, 『공감의 한계와 혐오의 미학』, 『영미문화』9권2호, 한국영미문화학회, 2009년)

해 자신의 위치에 대해 안심하기도 한다.

3. 타자성에 조응하는 공감

앞서 보았던 것처럼, 권씨는 혐오스럽게 재현된다. 이는 오선생이 느끼는 자연스러운 감정처럼 제시되지만, 실은 이순경이 매개한 국가주의적 가치의 결과이다. 국가가 직접 나서서 시민과 비시민을 중개하게 되면서, 개인들은 국가주의적 기제를 내면화하는 것과 동시에 배제될 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 이순경은 오선생에게 ‘친절한 이웃’이라고 말하며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하지만, 이 ‘사랑’은 비시민을 배제한 뒤 중개하는 감시/연민과 다르지 않다. 더욱이 오선생은 지식인임에도 하층계급으로 살아가는 것에 따르는 위협감을 ‘کم플렉스’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권씨에 대한 태도가 쉽게 달라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권씨는 이순경의 재현으로부터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 것인가? ‘발악’하는 ‘짐승’의 표상으로부터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 것인가? 혹은 그것이 가능하기나 한 것인가? 이러한 물음에 이 소설은 ‘공감’이라는 해법을 제시하며 이를 위해 이순경의 중개성을 배제한 채로 권씨의 목소리를 문면에 그대로 드러내는 모험을 한다. 이는 오선생의 감시의 시선을 권씨가 응시하는 지점에서부터 시작된다. 국가주의적 시선 이외의 다른 시선을 두지 않던 텍스트가 권씨의 목소리와 시선을 개입시키면서 텍스트의 중개성이 달라지기 시작한다.

“그저 팔 겁니까?” 아침 인사점 농담삼아 그에게 말을 걸었다. “팔겨냐구요?” 갑자기 일손을 멈추더니 그는 내 발을 내려다보았다. 아니, 내가 신고 있는 구두를 유심히 쏘아보는 것이었다. 이윽고 내 바짓가랑이와 저고리 앞섶을 타고 꼬물꼬물 기어올라오는 그의 시선이 마침내 내 시선과 맞부딪치면서 차갑게 빛났다. 그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르려는가 싶더니 어느새 입가에 냉소를 머금고 있었다. “어떻게 보고 하시는 말씀인지는 모르지만...” “제가 이거 실례했나봅니다. 달리 무슨 뜻이 있어서가 아니고...” (161쪽)

위의 인용은 『구두』의 대표적 표상인 ‘구두’가 나오고 있는 장면이다. 오

선생은 권씨의 여러 별의 구두를 바라보며 “팔 것”이냐고 묻는다. 권씨가 원래 무엇을 했던 사람인지에 대한 관심을 접어두고, 순경이 미리 얘기해준 ‘범법자’라는 사실과 세간의 부피만으로 여러 별의 구두를 ‘적합하지 않은 구두’로 포착하고 있는 것이다. 오선생이 권씨의 구두를 보며 ‘잉여’라고 판단하며 적당하지 않다고 여기는 것에는 권씨에 대한 편견과 ‘적당함’에 대한 이상이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권씨는 오선생의 해석을 거부한다. 오선생이 보기에 여러 별의 구두는 ‘영 안어울리는’ 것이지만, 권씨는 ‘어떻게 보고 하시는 말씀인지 모르지만’이라고 불응하면서 오선생의 해석을 거부한다. 권씨의 완강한 거부 이후, 오선생은 자신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던 생각과 느낌들을 조금씩 조정하며 ‘권씨’에 대해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새롭게 성찰해 낸다. 그러면서 오선생은 권씨와의 관계를 시민/비시민 이외의 관계로 상상해낸다. 물론 그는 이 과정에서 이에 대해 “전파차하고 사람하고 이렇게 가차이 없는” 관계를 만들어내는 것에 거부해하지만 이 과정에서 오선생과 권씨의 관계는 변화된다.

빛속에서 사람들이 경찰하고 한참 대결하는 중이었죠. 최루탄에 투석으로 맞서고 있었어요 청년은 그것이 마치 자기 조화속으로 그려진 그림이나 되는 것같이 기고만장입디다만, 솔직히 얘기해서 난 비에 젖은 사람들이 똑같이 비에 젖은 사람들을 상대로 싸우는 그 장면에 그렇게 감동하지 않았어요. 그것보다는 다른 걱정이 앞섰으니깐요 이 친구가 여기까지 끌고 와서 끝내 날 어쩔 작정인가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잠시 지켜보고 있는 사이에 장면이 휘까닥 바뀌져버립디다. 삼륜차 한 대가 어찌다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는 그만 소용돌이 속에 파묻힌 거예요. 데몰 피해서 빠져나갈 방도를 찾느라고 요리조리 함부로 대가리를 디밀다가 그만 뒤집혀서 벌렁 나자빠져버렸어요. 누렇게 익은 참외가 와그르르 쏟아지더니 길바닥으로 구릅디다. 경찰을 상대하던 군중들이 돌맹이질을 딱 멈추더니 참외 쪽으로 벌떼처럼 달라붙습니다. 한 차분이나 되는 참외가 눈깜짝할 새 동이 나버립디다. 진흙탕에 떨어진 것까지 주워서는 어적어적 깨물어 먹는 거예요. 먹는 그 자체는 결코 아름다운 장면이 못되었어요. 다만 그런 속에서도 그걸 다투어 주워먹도록 밑에서 떠받치는 그 무엇이 그저 무시무시하게 절실할 뿐이었죠. 이건 정말 나체화구나 하는 느낌이 처음으로 가슴에 팍 부딪쳐옵니다. 나체를 확인한 이상 그 사람들하곤 종류가 다르다고 주장해 온 근거가 별안간 흐려지는 기분이 듭니다. 내가 맑은 정신으로 나를 의식할 수 있었던 것은 거기까지가 전부였습디다.(177-178쪽)

이렇게 오선생과 권씨가 마주 앉아 이야기하게 되면서 권씨의 ‘난동’은 새로운 시각에서 재현된다. 이순경이 지적인 것처럼 국가주의적 질서에 적합하지 않은 행위를 지적하는 ‘난동’이 아니라 ‘난동’이 일어나게 된 그 과정을 세세히 들추어냄으로써 난동을 둘러싼 사건 전체를 조감해낸다. 권씨의 이야기에 따르면 권씨 또한 오선생처럼 재개발밖에 편승해서 광주군에 집 한 채를 마련해 보려던 사람이었다고 한다. 원래 그는 이 집회에서 주동자로 활동할 생각이 애초부터 없었고 심지어 ‘낮도둑처럼’ 몸을 피해 ‘남들의 힘으로 그 일이 성취되는 순간’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즉 “기회주의자”처럼 제 집의 소유권만 지키려고 전전긍긍했다고 고백한다. 원래 ‘권씨’는 전매로 썩 딱지를 합법적으로 승계하는 데만 관심있었기 때문에 시위군중들이 비 맞은 채 시위하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런데, 삶의 한순간 그런 기회를 잃고 범법자와 시위주동자가 되었다고도 말한다. 그 장면이란 “경찰을 상대하던 군중들이 돌맹이질을 딱 멈춘 채”, 갑자기 트럭에서 굴러 떨어진 진흙탕에 구르는 참외를 그대로 어적어적 삼켜대는 시위대의 모습이다. 이 장면을 목격하면서 권씨는 시위주동자로 변모한다. 이렇게 변모한 것에 대해 자세히 밝히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거주’하고자 하는 권리와 살고자 하는 권리가 동전의 양면이라는 사실을 인식했기 때문인 것처럼 보인다. 즉 치열하게 시위하던 군중들이 자신들이 하던 일조차 잊은 채 진흙탕에 구르는 참외를 먹는 것에는, 거주하고자 하는 권리가 인간의 생존권 문제와 다르지 않다는 인식이 개입되어 있는 것이다. 이 장면을 목격한 직후, 권씨는 오선생과 다른 다른 삶을 선택하게 된다.

이번 역시 보름 기한이었어요. 보름 되게 좋아합니다. 걸치하면 보름 안으로 해내라는 거예요” 옆친데 덮쳐 경기도에서는 토지취득세부과통지서를 발부했다. 관할과 소속이 각기 다른 서울시와 경기도가 이렇게 쌍나발을 부는 바람에 주민들은 거의 초주검 꼴이 되었다. 광주대단지 토지 불하가격시정대책위원회라는 유례없이 긴 이름의 임의 단체가 조직되었다. 대책위원회는 곧 투쟁위원회로 개칭되었다. 속에 식자께나 든 것으로 알려져 그는 같은 배를 탄 전매 입주자들에 의해서 대책위원과 투쟁위원을 고루 역임하게 되었다.

“그게 만약 감투 축에 든다면, 나한테 정말 분에 넘치는 감투였어요” 겸손의 말이 아니었다. 그런 일을 감당할 만한 능력도 없을뿐더러 자기는 여전히 광주단

지 사람이 아니며 어디까지나 서울사람이라는 생각 때문에 말고 싶지도 않았고 그래서 뻔질나게 보이지 않는 가운데 팽팽한 긴장 속에서 7월말 시한을 넘기고 8월 10일을 맞았다. 투쟁위원회에서 최후 결단의 날로 정한 바로 그날이었다.[...] 공기가 흥흥했다. 그 흥흥한 공기가 저기압을 불러왔음직했다. 비가 내렸다. 이른 아침부터 거리에 전단이 살포되고 벽보가 나붙었다. 시간이 되면 가슴에 달기로 한 노란 리본이 나누어졌다. 그는 방안에서 꼼짝도 하지 않으면서 밖에서 벌어지는 움직임에 잔뜩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꼭 무슨 일이 일어나고야 말 것을 예감케 하는 분위기였다. 그게 두려웠다.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건 그에게 있어 일어나지 않느니만 같지 못했다.(177쪽)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오선생에 의해 보여지기만 했던 ‘권씨’가 직접 자신의 목소리로 이러한 상황을 말한다는 사실이다. 원래 이 소설의 서술자이자 초점자는 오선생이기 때문에 이렇게 권씨의 기억을 생생히 묘사하는 것은 어렵다. 즉 이 작품의 서술자이자 초점자는 오선생이기 때문에 권씨의 이야기가 오선생을 매개하지 않은 채 전달될 수는 없다. 그러나 위의 인용문에서 보다시피, 오선생과 권씨가 이야기하는 장면에서 초점자가 권씨로 바뀌면서 권씨의 이야기가 독백처럼 생생히 재현되고 있다. 만약 이 시점을 유지하려고 했다면 권씨의 기억은 지나치게 축소되거나 아니면 요약되었을 것이다. 총 8페이지에 걸쳐 장황하게 광주대단지 사건이 재현될 수 있었던 것은 초점자가 바뀌게 되면서 가능해진 결과이다. 이 과정에서 오선생이 누리고 있던 중개자로서의 역할은 축소되거나 소거되면서 “겸손의 말이 아니었다”라는 식으로 권씨의 이야기를 보조하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그전까지 ‘난동’으로 치부된 역사가 새롭게 조명되었다.

이를 통해, 권씨가 국가의 감시 하에 놓인 ‘범법자’로서 의미화되는 것 뿐만 아니라 국가의 감시를 주체적으로 거부하는 주권자로 제시되었다. 이러한 재현은 오선생과 권씨의 관계가 달라지면서 가능해진 결과이다. 오선생은 국가가 부여한 감시의 시선 이외에 삶을 성찰하는 지식인의 시선을 되찾음으로써 자신과 권씨의 관계를 조망하는 또다른 안목을 얻게 되었다. 또한 오선생은 자기 삶에 내재한 위험과 비상사태에 대해 다시한번 재고하면서 자신과 유사한 ‘권씨’의 삶의 맥락들을 짚어낼 수 있게 되었다. 이 변화 속에서 권씨와 오선생의 관계 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개별적 경험이 거시적 안

목으로 보편화되고 있다. 만약 서술자 오선생이 국가가 부여한 시민의 의무만을 절대적으로 사수하려고 했다면 기괴한 철거민이자 짐승같은 권씨를 제대로 재현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오선생의 ‘감시’를 권씨가 거부하고 이를 오선생이 ‘실례’로서 수용하는 과정 속에서 이들은 새로운 관계에 놓이게 되었다. 그러면서 오선생과 권씨는 국가주의적 매개를 거치지 않은 채로 만나게 되었다.

또 이를 통해 오선생과 권씨는 ‘공감’에 이르게 된다. 오선생이 가지적으로 연민과 동정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있지만,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럴 법하다’고 느끼며 감시의 시선을 무장해제하는 것, 즉 자신이 알고 있는 ‘적당함’에 대한 판단을 재고하며 국가주의의 시선 바깥에 놓인 타자성의 흔적을 그대로 마주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새로운 공감의 징후다. 이 소설에서 나타난 바, ‘공감’은 타자들의 삶의 맥락에 대한 오선생의 상상력의 결과가 아니라, 오히려 상상하기 어려운 타자성의 기호를 통해 주체와 타자가 재구성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타자의 목소리를 어떻게 재현할 수 있을지, 혹은 그것이 가능하거나 한 일인지 하는 문제가 사유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배제되고 있는 권씨의 목소리가 오선생의 목소리와 공존하게 되었다. ‘공감’은 ‘동일시’라는 형식으로 감정이입되는 주체성의 형식이 아니라, 타자성을 발견하고 그것과 어떻게 공존할 수 있을지 모색하는 것이다. 이러한 공감을 통해 시민/비시민의 대립항은 무의미한 것으로 남게 되었다.

4. ‘찝찝함’의 윤리

앞서 보았던 것처럼 오선생과 권씨는 이순경의 중개를 벗어나 또다른 공감에 이르게 된다. 이 공감은 타자성을 발견하고 이것과 공존할 수 있는 성찰의 힘인 동시에 ‘친절한 이웃’으로 선전되는 국가주의적 가치에 균열이 가해지면서 가능해진 결과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공감이후 이 둘의 관계는 어떻게 달라지는가? 혹은 달라질 수 있는가?

작품 결말에서 권씨는 아내 뱃속에 있는 태중 아기가 위험하다는 사실로

인해 급하게 수술비를 구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된다. 그는 이 상황에서 자신의 처지에 공감하고 있는 오선생을 찾아가 돈을 꿔달라고 부탁한다. 이는 오선생과 권씨의 관계가 달라졌다는 사실의 반증이자 ‘공감’ 이후 관계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지 묻는 것이기도 하다. 오선생은 권씨의 처지를 생각하며 한동안 망설인다. 그도 그럴 것이 권씨가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안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권씨의 그런 처지를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오선생은 권씨가 요구하는 수술비가 자신이 감당하기에 벅찬 돈이라는 사실 또한 직시한다. 그러면서 오선생은 십만원이라는 돈이 그의 권한을 벗어난 “큰일”이라고 판단하며 “책임이 따르는 동정은 피하는 게 상책”이라고 생각한다. 오선생이 거절하고 난 후 권씨는 한 아이의 생명이 오선생의 친절이나 국가적 의료체제로 구해지지 않는다고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오선생의 돈을 강탈하는 ‘범법자’로 변신하기로 맘먹는다. 그런데 권씨가 오선생 집에 침입하는 것은, 두 가지 관계가 미묘하게 길항하는 것이다. 우선 오선생과 권씨의 공감된 관계를 부정하는 일이자 동시에 ‘권씨가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해치는’ ‘전과자’로 낙인찍힐 수 있는 가능성이 그것이다. 그러나 서투르게 분장한 권씨를 오선생이 알아봄으로써 권씨는 성공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집을 뛰쳐나가게 된다.

이렇게 해서, 이 소설에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동정’과 ‘연민’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권씨가 ‘범법자’라는 사실도 승인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누가 이 아이의 생명을 살리는가? 집주인 오선생이 감내하기에는 그 책임이 너무 과하고, 그렇다고 권씨 또한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안 된다. 한 아이의 생존권이 소시민의 권한을 벗어난 양심과 책임으로 해결될 수도 없고, 또 국가의 경계를 벗어난 탈주권자가 취하는 ‘범법자’라는 가짜 가면으로도 가능하지 않다. 이 지점에서 이 소설은 애매한 선택을 한다. 오선생이 계속해서 “찜찜해” 하다가 자신이 권씨의 보증금을 맡아 두고 있다는 나름의 ‘계산’을 하며 아이의 수술비를 대주는 것이 그것이다. 오선생은 권씨의 부탁을 거절한 직후, 자신의 권한 밖의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찜찜함’에 시달리며 이같이 결정한다. 이 찜찜함이란 ‘양심’일 수도 있고, 혹은 그간의 삶 속에서 체화된 연민일 수도 있다. 그러

나 분명한 것은 이 ‘찹찹함’이라는 불편한 감정이 오선생과 권씨의 공감 이후에 가능해진 감정이라는 사실이다. 공감과 동시에 체화된 ‘찹찹함’은 오선생의 ‘공감’이 타자의 타자성에 대한 공감이기 때문이다. 즉 주체와 타자가 전적으로 동일시되기 어렵기 때문에 이 ‘차이’가 ‘찹찹함’으로 감각화되고 있는 것이다. 다시말해, 찹찹함이란 주체와 타자가 일치되지 못하는 데 따르는 타자성이라는 잉여의 감정이다.

오선생의 이런 ‘계산’은 지식인의 ‘연대’로 말하기에 부적절하며 그렇다고 지식인의 성찰로 보기에 딱히 적절하지는 않다. 심지어 “찹찹함”은 개인 내면의 진정성을 담지한 감정도 아니고, 그렇다고 주체 외부의 감정도 아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라 형용할 수 없는 이 감정, 혹은 감응이 권씨의 아기를 살리는 힘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이다. 즉 이 ‘찹찹함’은 타자를 발견한 것과 동시에 이것들과 공존하는 힘이다.¹⁸⁾

윤홍길의 『아홉켄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는 개인의 생존권이 위태롭로운 사회 속에서 개인들 간의 관계가 국가주의 밖에서 어떻게 가능한지 가능한지 보여준다. 국가 밖을 상상하기 어려운 소시민의 갈등과 개인의 자유에 반응하는 지식인의 양가성 속에서 ‘찹찹함’은 또다른 관계를 야기하는 감응이다. 이는 ‘양심’이라는 숭고한 내적가치도 ‘이데올로기’라는 비장한 세계 인식까지도 아니지만, 적어도 권씨의 생존권에 밀착된 직접적인 반응이다. 이것이 비록 국가주의적 기획을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저항’이나 ‘탈주’는 아니지만 국가주의적 세계에 ‘틈’을 내는 또다른 관계성을 가능하게 하는 감정인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오선생의 감정 안에 남아있는 타자성의 흔적이 ‘찹찹함’으로 감각화되고 있다는 것, 결국 이 감응의 기호가 권씨의 태중 아기를 살리는 선택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18) 김두식은 최근 인권에 관한 교양서를 내면서 ‘불편함’을 인권감수성으로 언급하고 있다. ‘불편함’이란 다양한 개인들이 공존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감각인데, 실은 ‘정상성’의 기준이 분명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감각이기도 하다. 그는 서로 다른 존재들의 불일치가 만들어내는 감각을 ‘불편함’으로 언급하면서 이런 감각에 대해 좀더 관대하라고 말한다.(김두식, 『불편해도 괜찮아』, 창비, 2010.) 본고에서 언급하고 있는 ‘찹찹함’도 ‘혐오’의 하위감정이 아니라 타자들과 공존하는 데서 발생하는 감각이라는 점을 다시한번 강조하고 싶다.

이 글에서는 1970년대 맥락 속에서 ‘타자의 고통’에 ‘공감’한다는 것의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이 소설에서 작가가 재현하고 있는 것은 삶의 면면에 깊숙이 개입되어 있는 국가주의적 시선과 이 시선에서 자유롭지 않은 소시민의 딜레마이다. 국가주의적 재개발 과정에서 ‘집’은 개인의 개별적 기억이 새겨진 자연화된 장소에서 국가주의적 공간재편의 균질화된 공간으로 재구성되며, 이 과정에서 철거민은 장소를 잃는 것과 동시에 비시민으로 배제, 전락하게 된다. 때문에 이러한 사회 속에서 개인들은 집에 대한 거주권을 욕망하는 것과 동시에 불안한 삶이 야기하는 두려움과 혐오를 내면화하게 된다. 그러나 『아홉켄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에서는 타자의 타자성에 공감하는 감정을 통해 두려움과 혐오의 감정을 재구성하는 것과 동시에 공감을 통해 또다른 관계성의 영역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것은 그간 문학사에서 평가해왔던 민주적인 연대나 낭만주의적 결단은 아니지만, 각각의 개인들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는 나의 삶을 성찰하는 것과 동시에 이 삶으로부터 상상되는 또다른 개인들의 삶을 긍정하는 것, 그리고 이질적인 타자들의 삶을 재현하는 서사라는 사실을 일깨우는 것이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 윤홍길, 『아홉컬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 창작과비평, 1977.6
윤홍길, 『아홉컬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재판본, 문학과지성사, 1991.
<경향신문>, <동아일보>

2. 논문과 단행본

- 강내희, 『공간, 육체, 권력』, 문화과학사, 1995.
권희돈, 『아홉컬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의 빈자리 채워읽기』, 『현대소설연구』14. , 한국현대소설학회, 2001.
김수현, 『1917년 광주대단지 사건 연구』, 서강대 석사논문, 2007.
김연숙, 『서사물의 통속적 기획과 감정의 컨텍스트』 『국어국문학』 149호, 국어국문학회, 2008. 549-575쪽
서경석, 『유신시대와 기억으로서의 1970년대 문학』, 『1970년대 문학』, 소명출판, 2000.
성민엽, 『아홉컬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 연작의 현재적 의미』, 『아홉컬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 윤홍길, 1996.
손유경, 『한국 근대소설에 나타난 '동정'의 윤리와 미학에 관한 연구』, 서울대박사논문, 2006.
송은영, 『현대도시 서울의 형성과 1960-70년대 소설의 문화지리학』, 연세대박사논문, 2008.
신진욱, 『국가를 경유하는 시민적 연대의 길』, 『시민과 세계』12호, 2007, 6-28쪽.
오생근, 『개인과 사회의 역할』, 『아홉컬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 윤홍길, 1996.
엄미옥, 『상상된 공감, 소통의 시학』, 『대중서사연구』24, 대중서사학회, 183-209쪽.
이명호, 『공감의 한계와 혐오의 미학』, 『영미문화』9권2호, 한국영미문화학회, 2009, 1-28쪽.
이평전, 『윤홍길 소설에 나타난 자본주의 공간의 병리성 연구』, 『인문학연구』, 충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0, 133-154쪽.
전남일 외, 『한국 주거의 사회사』, 돌베개, 2008.
전상인, 『아파트에 미치다 - 현대 한국의 주거 사회학』, 이숲, 2008.
정과리, 『타인 안에서 나를 살다』, 『작가세계』통권17호, 1993.5. 78-100쪽
조대엽, 『공공성의 재구성 과 시민운동의 새로운 주기』, 『한국사회학회 2007 후기사회학대회 한국사회학대회(II) 학술대회 자료집』, 2007. 881-891쪽.

- 진은영, 『승고의 윤리에서 미학의 정치로』, 『시대와 철학』 20호, 한국철학사상연구회, 2009. 403-437쪽.
- 최병두, 『도시계획의 사회철학적 재인식』, 『사회비평』, 1989, 여름, 96-118쪽.
- 최병두, 『근대적 공간의 한계』, 삼인, 2002.
- 최인기, 『용산사태를 계기로 살펴본 철거민 운동』, 『진보평론』, 2009.3. 183-197쪽.
- 하정일, 『저항의 서사와 대안적 근대의 모색』, 『1970년대 문학』, 소명출판, 2000.
- 황종연, 『인간적 친화를 꿈꾸는 소설의 역정』, 『작가세계』 통권17호, 1993.5. 18-48쪽.
- 데이비드 하비, 구동회·박영민 역, 『포스트 모더니티의 조건』, 한울, 1994.
- 그램 질로코, 노명우 역, 『발터벤야민과 메트로폴리스』, 효형출판, 2005.
- 에드먼드 버크, 김동훈 역, 『승고와 아름다움의 이념의 기원에 대한 철학적 탐구』, 마티, 2006.
- 자크 데리다, 진태원 역, 『법의 힘』, 문학과지성사, 2004.
- 자크 랑시에르, 유재홍 역, 『문학의 정치』, 인간사랑, 2009.
- 조르조 아감벤, 김항 역, 『예외상태』, 새물결, 2009.
- 조르조 아감벤, 박진우 역, 『주권권력과 벌거벗은 생명』, 새물결, 2008.
- 발터 벤야민, 최성만 역, 『폭력비판을 위하여; 초현실주의』, 길, 2008.
- 사이토 준이치, 윤대석외 공역, 『민주적 공공성: 하버마스와 아렌트를 넘어서』, 이음, 2009.

Abstract

The Ethics of the others and the sympathy of Novels

Park, Suk-Ja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viewpoint and formative mechanism of novel reproducing the issue of residents ousted from redevelopment districts based on Yoon Heung-gil's *A Man Left as Nine Pairs of Shoes*. As known well, this novel deals with the incident of Gwangju new town recorded as the first urban poor struggle. First, in this novel, residents ousted from redevelopment districts are reproduced as weird and loathing figures. As suggested by the title, the sign of excess 'nine pairs of shoes' itself is used as a heterogeneous and bizarre rhetoric, and this view is primarily triggered by the order and interference of 'policemen' who appear from the early part of the story, and secondarily it is combined with the fear of petty bourgeois who are not free from statist interference. From the narrator's reflective view, however, the image of native (criminals) is transformed from loathing figures to the objects of compassion. By transcribing the confessions of residents ousted from redevelopment districts into the novel, the author reveals the real situation and personal truth of the demonstration. As a result, this cracks the novel's structural coherence of first person observer point of view, but it also reveals the ironical aspect that residents ousted from redevelopment districts become criminals for their right to existence. By reproducing the issue of residents ousted from redevelopment districts, this novel graphically describes the dilemmatic situation of petty-bourgeois/residents ousted from redevelopment districts who desire 'the right to existence/sovereignty' in the fear of statism. (Key words : sympathy, sympathetic imagination, Residents Ousted from Redevelopment Districts, native, Gwangju new town, redevelopment, fear, the right to live, sovereignty, petty-bourgeois, abhorrence, sympathy, affect)

이 논문은 2011년 4월 30일 투고되었고, 심사를 거쳐 5월 25일 게재가 확정되었음.